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 로마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문맥적 접근을 중심으로 —¹⁾

최갑중*

1. 들어가는 말: 문제의 제시

신약성경 중에 오직 바울 서신에만 πίστις Χριστοῦ(*pistis Christou*) 문구가 여덟 번(갈 2:16×2, 2:20, 3:22; 빌 3:9; 롬 3:22, 26; 엡 3:12) 나온다. 여기에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만 열다섯 번 나오는 ἐκ πίστεως(*ek pisteōs*) 구문(갈 3:7, 8, 9, 11, 24; 5:3; 롬 1:17×2; 3:30; 4:16; 5:1; 9:30, 32; 14:23×2)을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의 단축어로 보면,²⁾ πίστις Χριστοῦ가 바울 서신에 모두 스물세 번

* University of Denver & Iliff School of Theology에서 성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미국 Evangelia University 신약학 교수. gchoi@evangelia.edu.

- 1) 이 글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필자의 기존 연구들, 최갑중, “ΠΙΣΤΙΣ ΧΡΙΣΤΟΥ,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로마서 3:21-31에 나타난 πίστις와 δικαιοσύνη를 중심으로 -”, 『성경과 신학』 52 (2009), 65-107; 최갑중,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로마서 1:16-17, 3:21-31, 4:1-25에 나타난 ‘믿음’과 ‘의(義)’에 대한 상관성 연구를 중심으로 -”, 『신약논단』 17:2 (2010), 357-394; 최갑중,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약연구』 10:4 (2011), 911-940; 최갑중, “New Proposal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 Contextual Approach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Construction in Romans and Galatians” (Chicago: SBL Annual Meeting, 2012); 최갑중, “Agai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 김형근의 ‘Faith of Christ’와 ‘Faith in Christ’에 대한 답변 -”, 『신약연구』 12:2 (2013), 101-131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혀 둔다. 그러나 중복을 피해서 직접적인 인용은 피했다.
- 2) J. D. G. Dunn, “ΕΚ ΠΙΣΤΕΩΣ: A Key to the Meaning of ΠΙΣΤΙΣ ΧΡΙΣΤΟΥ”, J. R. Wagner, C. K. Rowe and A. K. Grieb, eds., *The Word Leaps the Gap: Essays on Scripture and Theology in Honor of Richard B. Hays* (Grand Rapids: Eerdmans, 2008), 351-366; F. Watson, “By Faith (of Christ): An Exegetical Dilemma and Its Scriptural Solution”,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나타나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와 ἐκ πίστεως 구문은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이 글에서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모든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를 살펴보지 않고, 로마서 3:22에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를 시범적으로 조사해 보려고 한다.³⁾ 먼저 한글 성경이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믿음을 친 부분)을 가진 로마서 3:22를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다음 영어 성경의 경우를 보자.

- 『개역개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
(2006) 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 『공동』 하느님께서서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아무런 차별도
(1977) 없이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새번역』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2004)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 『표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2001)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 『현대인의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
(1985) 님께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2005)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
(2004) 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Hendrickson, 2009), 147-164에서 단축어로 본다.

3)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의 구문에 대한 논자의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각주 2에 언급된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길 바란다.

『200주년 신약성서』 (2001)	그러나 <u>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통하여</u> (나타나 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모든 믿는 이들을 위한 것입니 다. 차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 (2021)	<u>예수 그리스도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u> 하나 님의 의는 ⁴⁾ 모든 믿는 하나님의 의는 모든 믿는 사람에 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니까요.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로마서 3:22에 대한 한글 성경을 보면 번역에 조금씩 차이가 있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διὰ πίστεως를 『개역개정』, 『우리말성경』, 『새한글』은 일종의 원인적 의미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으로 번역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새번역』, 『표준새번역』, 『성경』, 『200주년 신약성서』는 방법 내지 도구적 의미인 “믿음을 통하여”로 번역하고 있다. 둘 중 전자보다 후자가 본문과 문맥상으로 볼 때 타당성을 지닌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도구적인 의미인 “through faith”로 번역하고 있다.⁵⁾ 하지만 다같이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에 대해서는 모두 문법적으로 목적 속격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개역개정』, 『공동』),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새번역』, 『표준새번역』, 『우리말성경』, 『현대인의성경』),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신앙)으로”(『성경』, 『200주년 신약성서』)로 번역하고 있다.⁶⁾

반면에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과 달리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의 번역이 매우 빠르게 주격 속격 번역으로 변경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물론 아래에서

4) 2021년 연말에 나온 『새한글성경 신약과 시편』(2021) 롬 3:22의 “...믿음을 통해 생겨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번역은 문제가 있다. 기존 한글 성경 번역은 물론, 그 어떤 영어 성경 번역도 ‘하나님의 의가 믿음을 통해 생겨났다’고 번역한 경우는 없다. 무엇보다도 이 번역은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의와 믿음 용법과도 맞지 않는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와 관련하여 믿음은 항상 수단 혹은 통로 역할을 하지, 하나님의 의가 발생하는 동인이 아니다. 명사든 동사든 하나님이 의의 근원이며, 하나님께서 신자의 믿음을 통해 의를 사람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의 동인은 될 수 있지만, 믿음이 의를 생겨나게 하는 동인이 될 수 없다. 롬 3:22와 유사한 갈 3:22에 보면 하나님의 의와 대칭어인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영어번역 NIV (2011)는 롬 3:22를, “This righteousness is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로 번역하고 있다.

5)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88-194를 보라.

6) 『한글 흠정역』(2008)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주격 속격인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로 번역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순수한 우리말 성경이 아니고, KJV(“the faith of Christ”)의 번역이기 때문에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영어 성경에도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목적 속격으로 간주하여, “faith in Christ”로 번역한 성경이 현재까지는 다수이다. 그러나 지난 1990년 이후부터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주격 속격인 “the faith of Christ” 혹은 “the faithfulness of Christ”로 번역하는 성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목적 속격(“faith in Christ”)으로 번역한 성경>

- NIV(2011) This righteousness is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Jew and Gentile.
- RSV(1971)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 NRSV(1989)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⁷⁾
- EHV(2019) This righteousness from God come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and over all who believe. In fact, there is no difference.
- ERV(2006) God makes people right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He does this for all who believe in Christ. Everyone is the same.
- ESV(2016)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 NASV(2020) but *it is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those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 CSV(2017) The righteousness of God is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 since there is no distinction.
- NCB(2019)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No distinction has been made.
- GNT(1992) God puts people right through their faith in Jesus Christ. God does this to all who believe in Christ,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at all.⁸⁾

7) NRSV는 각주에 “the faith of (Jesus) Christ”를 첨가한다.

8) 그 밖에 목적 속격 번역으로는 AMP(2015), BRG(2012), GW(2020), HCSB(2009), ICB(2015), LEB(2012), MEV(2014), NABRE(2010), NCV(2005), NIRV(2014), NKJV(1982), NLV(2003),

<주격 속격(“faith of Christ”/“faithfulness of Christ”)으로 번역한 성경>

- KJ21(1994)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by faith of Jesus Christ, unto all and upon all those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 BRG(2012) “Even the righteousness of God *which is by faith of Jesus Christ* unto all and upon all them that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 CEB(2011) “God’s righteousness comes through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for all who have faith in him. There’s no distinction.”
- CJB(1998) “and it is a righteousness that comes from God, through the faithfulness of Yeshua the Messiah, to all who continue trusting. For it makes no difference whether one is a Jew or a Gentile.
- EXB(2011) “God makes people right with himself [This righteousness comes]through ·their faith in [*or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This is true for all who believe in Christ, because ·all people are the same [there is no distinction/difference;^Cbetween Jews and Gentiles].”
- ISV(2014) “God’s righteousness through the faithfulness of Jesus the Messiah—for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among people.”
- JUB(2020) “the righteousness, that is, of God by the faith of Jesus, the Christ, for all and upon all those that believe in him, for there is no difference.”
- NET(2017) “namely, the righteousness of God through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for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stinction.”
- RGT(2019) “that is, the righteousness of God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unto all and upon all who believe. For there is no difference.”

NLT(2015), NRSVA(1995), RGT(2019).

VOICE(2012) “This redeeming justice comes through the faithfulness of Jesus, the Anointed One, the Liberating King, who makes salvation a reality for all who believe—without the slightest partiality.”

WYC(2001) “And the righteousness of God is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into all men and on all men that believe in him; for there is no parting. [Soothly the rightwiseness of God is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into all and on all that believe into him; forsooth there is no distinction, or parting.]”

지난 1990년대 이후부터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주격 속격 영어 번역 성경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된 이유는 1980년대부터 영미권 학자들 사이에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주격 속격 옹호자들이 증가하였고, 그들로부터 신학 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교회에 크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⁹⁾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한국에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주격 속격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은 없다. 하지만 국내에도 주격 속격을 옹호하는 신학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 주석과 학회와 강의실을 통해 주격 속격의 필요성을 주창하는 학자들도 적지 않다.¹⁰⁾ 이뿐만 아니다. 국내 서점에

9) 예. 최근에 K. W. McFadden, *Faith in the Son of God: The Place of Christ-Oriented Faith within Pauline Theology* (Wheaton: Crossway, 2021)에서 바울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은 주격 속격인 “the faithfulness of Christ”로 번역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10) 국내 주격 속격 옹호자들의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춘기, “바울서신에 나타난 피스티스 크리스투”, 『신학과 목회』 5 (1991), 15-30; 박익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신학과 세계』 41 (2000), 87-127; 박익수, 『로마서 주석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310-312; 서동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신약논단』 9 (2002), 671-696; 최홍식, “ΠΙΣΤΙΣ in Gal 5:5-6: Neglected Evidence for the Faithfulness of Christ”, *JBL* 124 (2005), 467-490; 최홍식, “바울서신에 나타난 ἔργα νόμου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반제에 대한 새 관점: 갈라디아서 2: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 (2005), 805-854; 최홍식, “‘의롭게 됨’과 Πίστις Χριστοῦ-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한국 기독교신학논총』 77:1 (2012), 31-55; 한규석, “Pauline Soteriology in Galatians with Special Reference to PISTIS CRISTOU”,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2007); 한규석, “Pistis Christou as the Irrevocable Nature of Salv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Gal 2:16”, *Testamentum Imperium* 2 (2009), 1-31; 김종길,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믿음”, 『신학사상』 144 (2009), 7-42; 이진섭, “믿음과 아브라함의 주제가 함의하는 바울의 신학적 논거”, 『Canon & Culture』 3:2 (2009), 211-248; 홍인규, “하나님의 의의 복음(롬 3:21-26)”, 『백석신학 저널』 20 (2011), 199-215; 김형근, “‘Faith of Christ’와

는 주격 속격을 강하게 주창하는 영미권의 학자들, 특히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의 주격 속격 번역을 바울신학 해석의 플랫폼으로 삼고 있는 리처드 헤이스(R. Hays)와 톰 라이트(N. T. Wright)의 책에 대한 한글 번역판들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¹¹⁾ 그래서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주격 속격 번역을 선호하는 신학도들, 목회자들, 젊은 평신도들도 많아져 가고 있다. 따라서 멀지 않은 장래에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를 주격 속격인 “그리스도의 믿음” 혹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한 한글 성경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왜 1990년 이후부터 영미권에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를 “the faith of Christ” 혹은 “the faithfulness of Christ”로 번역한 성경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가? 그리고 국내 신학계에 주격 선호 신학자들이 많아졌는가? 1980년대 이후부터 영미 대학교에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주격 속격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바울신학을 해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신학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신학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학위를 받아 한국으로 돌아온 젊은 신학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세계성서학계 저수지에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주격 번역의 돌을 던져 파장을 일으킨 사람은 앞에서 언급한 헤이스이다. 그는 1983년 출판된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¹²⁾에서 갈라디아서 본문을 개인의 믿음 이야기가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내러티브로 보아야 하며, 그 축을 담당하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도 개인의 믿음을 뜻하는 “faith in Christ”가 아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을 뜻하는 “the faithfulness of Christ”로 번역되어

‘Faith in Christ’: 제로섬(zero-sum) 관계인가? 윈윈(win-win) 관계인가? - 갈라디아서의 ΠΙΣΤΙΣ ΧΡΙΣΤΟΥ를 중심으로 -, 『신약 연구』 11:4 (2012), 890-929; 조대훈,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수사학적 연구 - 갈라디아서 3장을 중심으로 -”, 『신약 연구』 13 (2013), 130-155.

11) R.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 ed. (Grand Rapids: Eerdmans, 2002)는 2013년에 리처드 B. 헤이스,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서 3:1-4:11의 내러티브 하부 구조』,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3)으로 출판되었고, 톰 라이트(T. Wright)의 경우, T. Wright, *Justification. God's Plan & Paul's Visi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9)가 2011년에 톰 라이트,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1)으로, T. Wrigh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Parts III and IV* (London: SPCK, 2013)가 2015년 톰 라이트,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 2015)을 위시하여 50권 이상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젊은 신학도, 목회자,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12) 이 책은 본래 헤이스(R. Hays)가 1981년 에모리(Emory) 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이었으며, R.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Dissertation Series 56 (Chico: Scholars, 1983)으로 출판되었다.

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 뒤 영국 Cambridge 대학교의 후커(M. D. Hooker)가 1989년 세계 신약학회(SNTS) 회장 취임 연설 “ΠΙΣΤΙΣ ΧΡΙΣΤΟΥ”에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은 “the faith in Christ”가 아닌, “the Faithfulness of Christ”로 번역되어야 함을 재차 주장하였다.¹³⁾ 그 결과 1991년 세계성서학회(SBL) 연례모임에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주격 속격 번역을 주창하는 헤이스와 목적 속격을 주창하는 던(J. D. G. Dunn)이 서로 격돌하였다.¹⁴⁾ 그로부터 지난 30년간 세계 성서 신학자들은 목적 속격 주창자¹⁵⁾와 주격 속격 주창자¹⁶⁾로 양분되어 많은 논문과 단행본을 통해 토론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¹⁷⁾ 최근에는 양쪽의 견해를 절충하여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그리스

13) 그의 “ΠΙΣΤΙΣ ΧΡΙΣΤΟΥ”는 M. D. Hooker, “ΠΙΣΤΙΣ ΧΡΙΣΤΟΥ”, *NTS* 35 (1989), 321-342에 게재되었다.

14) 그들의 논문은 R.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49-271, 272-297에 수록되어 있다.

15) 예. J. D. G. Dunn, “Once More ΠΙΣΤΙΣ ΧΡΙΣΤΟΥ”, K. H. Richards, ed., *Society for Biblical Literature 1991 Seminar Paper* (Atlanta: Scholars, 1991), 124-146; J. D. G. Dunn, “ΕΚ ΠΙΣΤΕΩΣ: A Key to the Meaning of ΠΙΣΤΙΣ ΧΡΙΣΤΟΥ”, 351-366; R. B. Matlock, “Detheologizing the ΠΙΣΤΙΣ ΧΡΙΣΤΟΥ Debate: Cautionary Remarks from a Lexical Semantic Perspective”, *NovT* 42 (2000), 1-23; R. B. Matlock, “ΠΙΣΤΙΣ in Galatians 3.26: Neglected Evidence for ‘Faith in Christ’?”, *NTS* 49 (2003), 433-449; R. B. Matlock, “The Rhetoric of Πίστις in Paul: Galatians 2.16, 3.22, Romans 3.22, and Philippians 3.9”, *JSNT* 30:2 (2007), 173-203; R. B. Matlock, “Saving Faith: The Rhetoric and Semantics of πίστις in Paul”,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73-89; D. A. Carson, “Why Trust a Cross? Reflections on Romans 3:21-26”, *ERT* 28 (2004), 345-362; F. Watson, “By Faith (of Christ)”, 147-164; A. J. Hultgren, “Pistis Christou: Faith in or of Christ”, in *Paul’s Letter to the Romans*, Appendix 3 (Grand Rapids: Eerdmans, 2011), 623-661; W. V. Cirafesi, “ἔξεν πίστιν in Hellenistic Greek and Its Contribution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BAGL* 1 (2012), 5-37; J. van Nes, “‘Faith(fulness) of the Son of God’? Galatians 2:20b Reconsidered”, *Novum Testamentum* 55 (2013), 127-139; Ryan S. Schellenberg, “οἱ πιστεύοντες: An Early Christ-Group Self-Designation and Paul’s Rhetoric of Faith”, 65 *NTS* (2019), 33-42.

16) 예. D. A. Campbell, “The Meaning of ΠΙΣΤΙΣ and ΝΟΜΟΣ in Paul: A Linguistic and Structural Investigation”, *JBL* 111:1 (1992), 85-103; D. A. Campbell, Romans 1:17-a *Cruce Interpretum* for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ebate”, *JBL* 113 (1994), 265-285; D. A. Campbell, “False Presuppositions in the ΠΙΣΤΙΣ ΧΡΙΣΤΟΥ Debate: A Response to Brian Dodd”, *JBL* 116:4 (1997), 713-719; D. A. Campbell,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in Romans 3:22”,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57-71; S. L. Young, “Paul’s Ethnic Discourse on ‘Faith’: Christ’s Faithfulness and Gentile Access to the Judean God in Romans 3:21-5:1”, *HTR* 108:1 (2015), 30-51; Wrigh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836-841, 857-860; McFadden, *Faith in the Son of God: The Place of Christ-Oriented Faith within Pauline Theology*.

17) 양쪽 주장에 대한 자세한 요약은 위해서는 M. C. Easter, “The Pistis Ch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 in Summary”,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9:1 (2010), 33-47을, 양쪽의 주요 쟁점을 위해서는 M. F. Bird and P. M. Sprinkle, *The Faith of Jesus Christ*:

도의 신실함은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의 믿음(신실함) 양면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거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를 “그리스도로부터 기원한 믿음”으로 번역하려는 제3의 견해도 등장하여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논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¹⁸⁾

그렇다면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목적 속격과 주격 속격 번역 중 어느 번역이 더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 번역 문제는 가볍게 취급될 수 없다.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주격 속격을 선택할 경우 성경 번역의 수정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¹⁹⁾ 종교개혁의 유산인 이신칭의 교리와 바울 신학도 재해석을 요구할 수 있다.²⁰⁾ 관건은 사도 바울이 과연 그의 서신에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가이다.

2. 본 말: 문제 해결의 시도

이제 논자는 바울이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일종의 시범 사례로 로마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에 대한 문맥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논자가 파악하기로는 그동안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문법적, 구문론적, 신학적인 접근은 많이 수행되었으나,²¹⁾ 문맥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었다.²²⁾ 그리고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에 실린 논문들을 보라.

- 18) 예. J. M. Suzan Sierksma-Agteres, “Imitation in faith: enacting Paul’s ambiguous *pistis Christou* formulations on a Greco-Roman S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y and Theology* 77:3 (2016), 119-153; B. Schliesser,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JSNT* 38:3 (2016), 277-300; K. Grasso, “A Linguistic Analysis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The Case for the Third View”, *JSNT* 43:1 (2020), 108-144.
- 19) 이 문제와 관련하여 Chun Li, “When Academic Debate Meets Translation Decision: The English Translation of *Pistis Christou* as an Example”, W. Loader, B. Pepschinski, and E. Wong, eds., *Matthew, Paul, and Others: Asian Perspective on New Testament Themes* (Hong Kong: Innsbruck University Press, 2019), 177-189를 보라.
- 20)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 번역의 차이가 바울신학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D. L. Stubbs, “The Shape of Soteriology and the *Pistis Christou* Debat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1:2 (2008), 137-157을 보라.
- 21) M. F. Bird and P. M. Sprinkle,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에 실린 논문들을 보라.
- 22)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문맥적 접근의 중요성은 일찍이 H. D. Betz, *Galatians* (Philadelphia: Fortress, 1979), 118 n.45; F. Watson, *Paul and the Hermeneutics of Faith* (London: T & T Clark, 2004), 6에서 언급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한 문맥적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철저한 문맥적 접근은 논자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에 대한 많은 논쟁을 통해서 문법적, 구문론적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양쪽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다.²³⁾ 그러므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에 대한 문맥적 접근은 당위성을 갖고 있다.

이 글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3:21-26의 구조와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질문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첫째,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이 본문과 문맥에서 신자가 δικαιοσύνη(‘의’)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δικαιοσύνη가 계시 되는 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 둘째, 로마서 3:21-26의 문단에서 그리스어 πίστις(‘믿음’)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실성’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가? 셋째, 3:21-31의 문단에 여러 번 나타나는 ἐκ(ek) 혹은 διὰ(dia) πίστεως(pisteōs)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의 단축어인가?

2.1. 3:21-26의 구조와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다음의 NTG²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21-26은 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은 22절과 26절에 한 번씩 나온다:

21 Νυνὶ δὲ χωρὶς νόμου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 πεφανέρωται μαρτυρουμένη ὑπὸ τοῦ νόμου κ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 22 δικαιοσύνη δὲ θεοῦ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εἰς πάντας τοὺς πιστεύοντας. οὐ γάρ ἐστιν διαστολή, 23 πάντες γὰρ ἡμάρτων καὶ ὑστεροῦνται 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 24 δικαιοῦμενοι δωρεὰν τῇ αὐτοῦ χάριτι διὰ τῆς ἀπολυτρώσ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25 ὃν πρόθετο ὁ θεὸς ἰλαστήριον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 εἰς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διὰ τὴν πάρεσιν τῶν προγεγονότων ἀμαρτημάτων 26 ἐν τῇ ἀνοχῇ τοῦ θεοῦ, πρὸς τὴν ἔνδειξιν τῆς δικαιοσύνης αὐτοῦ ἐν τῷ νῦν καιρῷ, εἰς τὸ εἶναι αὐτὸν δίκαιον καὶ δικαιοῦντα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3:21-26은 로마서에서 주제 문단인 1:16-17과 함께 바울 복음의 핵심을 보

23) 예. D. B. Wallace,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112-116; S. E. Porter and A. W. Pitts, “Πίστις with a Preposition and Genitive Modifier: Lexical, Semantic, and Syntactic Consideration in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Discussion”,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33-53; M. D. Hooker, “Another look at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SJT* 69:1 (2016), 46-62; T. R. Schreiner, *Romans*,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18), 191.

여주는 문단으로 알려져 있다.²⁴⁾ 로마서 전체 구조에서 보면 3:21-26 문단은 서문(1:1-3)과 주제 문단(1:16-17)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의의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인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제시하려고 하는 그의 복음의 전주곡으로 볼 수 있다.²⁵⁾ 그런 점에서 3:21-26의 본문은 로마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며, 로마서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²⁶⁾ 지면상 3:21-26에 대한 자세한 주석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문단에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의 내용과 그 용도를 파악하기 위해 3:21-26의 구조 및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자.²⁷⁾

3:21-26의 구조는 21절, 22-23절, 그리고 24-26절 등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²⁸⁾ 첫째 부분인 21절은 이 문단의 표제이다. 바울은 21절에서, 서신 전체의 주제 문단(1:16-17)에서 선언하였던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고 있다’라는 것과 거의 동일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1:17의 선언과 달리, 수식하는 세 가지 문구, “이제는”(Νυνὶ δὲ), “율법 외에”(χωρὶς νόμου), 그리고 분사 절인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고 있다’(μαρτυρούμενη ὑπὸ τοῦ νόμου καὶ τῶν προφητῶν)를 첨부하여, 이 하나님의 의가, 구약성경에서 약속되었지만, 모세의 율법과는 새로운 것임을 천명한다.²⁹⁾ 그런 다음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문구가 있는 22절이 이어진다.

24) 롬 3:21-26에는 주제 문단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믿음’, ‘모든 믿는 자’, ‘나타나다’, 그리고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대한 해설이 등장한다. 그래서 로마서의 심장으로 불려진다. 예. C. E. B. Cranfield, ed., *On Romans and Other New Testament Essays* (Edinburgh: T & T Clark, 1998), 199: “우리는 3:21-26절의 소단원이 1:16b-15:13 전체의 중심과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T. R. Schreiner, *Romans*, 186: “대다수 학자는 이 단락을 서신의 심장으로 보고 있다.”

25) D. A. Campbell, *The Rhetoric of Righteousness in Romans 3.21-26*, JSNTS 6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11; J. A. Fitzmyer, *Romans* (New York: Doubleday, 1997), 342; 박익수, 『로마서 주석 I』, 303.

26)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G.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92; W. S. Campbell, “Romans iii as a Key to the Structure and Thought of the Letter,” *NovT* 23 (1981), 22-40.

27) R. Longenecker,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6), 391.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92; J. Dunn, *Romans 1* (Dallas: Word Books, 1988), 163-164;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1* (Vluyn: Benziger, 1978), 183-184; P. Stuhlmacher, *Romans* (London: T & T Clark, 1994), 57-58; 박익수, 『로마서 주석 I』, 316-317은 롬 3:21-26이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바울 이전에 이미 있었던 초기기독교 공동체의 신앙 고백문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을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나 자료는 없다. 자세한 논증은 C. E. B. Cranfield, *Romans 1*, 200; 최종상,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 신대현 역 (서울: 아가페, 2003), 168-69, n. 24를 보라.

28) 김상훈, “A Pauline Chiastic Structure in Romans 3:19-31”, 『신약연구』 12:1 (2013), 64.

29)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1*, 184; T. R. Schreiner, *Romans*, 188.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22절에서 중요한 것은 21절과의 관계 문제이다. 즉, 22절이 21절에서 선언한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21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의의 목적과 용도를 설명하고 있는냐는 것이다. 전자는 하나님의 의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에 21절의 동사 ‘나타났다’(πεφαιένρωται)를 넣게 하고,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편인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뜻하는 것으로 보게 한다. 하지만 이와 달리 22절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목적, 내지 용도를 설명하는 구절로 볼 경우,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의의 목적, 곧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방편이 된다. 이 문제는 21, 22절의 뿌리가 되는 로마서 주제 구절, 그리고 22절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 그리고 22절에 이어 나오는 23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관련된다. 하지만 1:16-17과 갈라디아서 3:22의 연관문제는 나중에 다시 취급할 것이기에, 여기서는 23절과의 연관성 문제만을 살펴보자.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23절은 인류의 문제를 말하는 1:18-3:20의 요약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의와 평행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따라서 3:23을 22절보다 3:21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로 볼 수 있게끔 한다. 하지만 23절에 나오는 이유 접속사 ‘갈’(γάρ), 3:22의 단어 ‘모든 사람’(πάντες),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τῆς δόξης τοῦ θεοῦ)은 21절보다 22절의 하나님의 의와 연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한다.³¹⁾ 이 경우 23절은 22절에 언급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된다.³²⁾

그다음에 나오는 3:24-26은 23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 곧 21절과 2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된다. 3:24-26의 문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문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τῆς ἀπολυτρώσ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24절), ‘그의 피로 인한 화목/속죄제물’(ἱλαστήριον³³⁾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 25절)의

30)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95.

31) *Ibid.*, 94.

32)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18), 246-247.

33) 『개역개정』은 ἱλαστήριον을 ‘화목제물’로, 『새번역』과 『표준』은 ‘속죄제물’로 번역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을 가리키는 ἱλαστήριον에는 ‘화목’과 ‘속죄’ 제사 양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자세한 논의는 T. R. Schreiner, *Romans*, 200-206; D. A. Carson, “Why Trust a Cross?: Reflections on Romans 3:21-26”, 354-355를 보라.

문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4-26절 전체 문장의 강조점은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이다. 3:24의 ‘의롭게 하시는’ 분사 절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일종의 신적 수동태 분사 절이다. 이 절을 수식하는 ‘그의 은혜로 값없이’ 문구도 분사 절의 주어인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리고 24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마련하신 분도 25-26절의 관계대명사 절의 주어인 하나님이다.

25절에 언급한 “화목/속죄제물”을 공개적으로 세우신 분도, 이를 통해 자신의 의를 들어내신 분도, 25절의 마지막 문구인 분사 절, ‘전에 지은 죄를 일시 넘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절인 26절도 모두 25절의 주어인 하나님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다. 26절을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전치사구, ‘하나님의 참으심으로’, 두 번째 전치사구, ‘이때에 그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세 번째 부정사구, ‘그가 의로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 분사 절,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고’가 모두 25절의 주어인 하나님의 행동,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건 및 화목/속죄제물을 세우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³⁴⁾ 이처럼 24-26절의 전체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마련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26절 끝에 있는 분사 절의 목적절에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인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는 능동태 분사 절의 주어인 하나님이 의롭게 하는 대상을 말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가 아닌, ‘예수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문단은 가까이는 로마서의 주제 구절인 1:16-17과 연결되어 있고, 멀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로마서 주제 구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3:21-26에 주제 문단의 주요 어휘와 내용 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주제 구절(1:16)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은 3:21-26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대칭 언어이다. 1:17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즉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제 구절의 복음은 그 앞에 있는 1:1-4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며,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과 다윗의 혈통으로 출생한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3:21-26에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된 것이며(3:21), 그 내용은 우리

34) T. R. Schreiner, *Romans*, 204;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62.

가 살펴본 것처럼 메시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 들어낸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다(로마서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의의 표현이다. 예. 4:25; 5:17, 18, 19, 21; 6:7).

주제 구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계시 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3:21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한다(두 동사는 동의어처럼 사용된다).³⁵⁾ 그런데 주제 구절은, 우리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네 번이나 ‘믿음’ 어휘를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아닌,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통해 구원을 가져다주는 ‘신자의 믿음’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3:21-26에 네 번이나 나오는 ‘믿음’ 어휘(3:27-31에서 5번)도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시는 ‘신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³⁶⁾ 더욱이 3:21-26의 후 문단인 3:27-31에서 ‘믿음’ 어휘가 사람들의 자랑, 행위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면서(3:27), 하나님이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방편이 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사실(3:28, 30)이 이점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어떤 점에서 3:21-26은 전체적으로 1:16-17의 주제 구절의 주석으로 볼 수 있으므로, 1:16-17의 ‘믿음’ 어휘가 3:21-26의 ‘믿음’ 어휘와 다르다고 말할 수 없다.

3:21-26이 출애굽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용어와 내용 면에서 확인이 된다. 잘 알려진 대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구원 사건이다. 마찬가지로 3:21-26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신 구원 사건을 말하고 있다. 출애굽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처럼(출 12:21-28), 3:21-26은 출애굽 사건을 연상하게 하는 구속(속량, 신 7:8; 9:26; 15:15; 24:18), 그의 피, 곧 양의 희생적 죽음을 가리키는 예수의 화목/속죄제물(ἱλαστήριον), 그리고 이에 대한 믿음을 통한 죄에 대한 심판의 면제를 말하고 있다(3:25-26). 이뿐만 아니다. 구약은 종종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지킨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으로(출 2:24-25), 그리고 이를 하나님의 의와 구원 사건으로 표현하고 있

35) 하나님의 행동을 대변하는 수동태 동사 현재형 ἀποκαλύπτεται는 3:21의 수동태 완료형 동사 πεφανέρωται와 결어인 16:26의 과거 수동태 분사 φάωρθθειτος와 함께 모두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사역을 가리키고 있다. J. Dunn, *Romans 1-8*, 43; T. R. Schreiner, *Romans*, 66을 보라.

36) 바울 서신에서 ‘구원하다’와 ‘의롭게 하다’의 동사는 다 같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는 것처럼(예. 시 98:2; 사 46:13; 51:6-8), 서로 동의어처럼 사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물론 구원은 의보다 더 큰 개념이다.

다(삼상 12:6-7; 느 9:7-8; 사 46:13; 51:6-8). 마찬가지로 3:21-26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죄인의 구속을 하나님의 의의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3:26). 따라서 3:21-26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새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2.2. 3:22에서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와 관련된 우선적인 쟁점은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이 구원론적인 전망에서 신자가 δικαιοσύνη에 도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론적인 면에서 δικαιοσύνη가 계시 되는 방도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있다. 과연 3:22은 전후 문맥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이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3:21과 3:22의 관련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로마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주격 속격인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헤이스(R. Hays), 캠벨(D. Campbell), 위더링턴(B. Witherington III), 홍인규 등은 이를 강조하기 위해 로마서 3:21에 나오는 동사 πεφανέρωται(‘나타나다’)가 3:22의 δικαιοσύνη θεοῦ(‘하나님의 의’) 다음에 생략되어 있다고 주장한다.³⁷⁾ 그래서 3:22의 전반부를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번역한다. 과연 로마서 3:21-26의 문단이 이들의 주장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 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통하여 계시되었음을 말하는가? 하지만 3:22를 이들의 주장처럼 읽으면 몇 가지 해석학적 난점을 피하기 어렵다.

첫째, 바울은 3:19에서 로마서에서 여러 번(2:2; 3:19; 7:14; 8:22, 28) 사용하는 일종의 고백적인 표현(οἶδαμεν)을 사용하여, ‘율법이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상 율법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류(유대인과 이방인, 1:18-3:19)를 구원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그리고 다음 절인 20절 서두에 있는 이유 접속사 διότι(‘디오티’)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이유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

37) R.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158; D. A. Campbell, “The Faithfulness of Jesus in Romans 3:22”, 60-63; B. Witherington III,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4), 101-102; 홍인규, “하나님의 의의 복음(롬 3:21-26)”, 199-215.

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갈 3:10), 또 하나는,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롭게 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죄를 깨닫도록 주어졌다는 것이다(롬 7:7-9). 이러한 선언은 사실상 모세의 율법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서두에 있는 ‘그러나 이제는’이란 말과 ‘율법 외에’라는 말은 모세의 율법이 제시했던 그 길, 곧 율법을 순종하면 축복인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의 나라가 되지만(출 19:5-6), 율법에 불순종할 경우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길(신 30장)과는 다른 길을 암시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언약을 깨뜨린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이 언약 준수의 책임을 지니기 때문에, 더는 깨어질 염려가 없는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렘 31:1-33),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길인 하나님의 의의 길이 나타났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처럼 3:20에 있는 모든 사람(육체)에게 의를 가져올 수 없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과, 이와 대조적으로 3:21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긍정적 입장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다. 따라서 3:22는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3:21의 반복이 아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련한 의를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새로운 긍정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³⁸⁾ 이점은 이유 접속사 γάρ(gar)로 시작하는 3:23과, 그리고 3:27-31의 문단이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특히 3:30을 보라),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에 대한 실례로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평행을 이루는 주제 문단(1:16-17)도 이를 뒷받침한다. 만일 주격 속격 주창자들처럼, 3:21 이하의 문단이 기독교론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전 문단(3:20), 후 문단(3:23-31), 후 문단의 실례로 제시되고 있는 4장, 그리고 4장과 연결된 5:1a에 있는 분사 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므로’(Δικαιωθέντες οὖν ἐκ πίστεως)가 모두 이상하게 된다.

3:21에 있는 동사 πεφανερώται가 3:22에 생략되어 있다는 주장도 옳다고

38) 이 점은 3:21에 있는 일종의 반위 접속사 δέ가 그 앞에 있는 3:20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3:22에 있는 δέ가 3:21과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도 확인이 된다. 보다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보라: S. J. Gathercole, “Justified by Faith, Justified by his Blood: The Evidence of Romans 3:21-4:25”, *Justification and Variegated Nomism*, D. A. Carson et al., eds. (Grand Rapids: Eerdmans, 2004), 151-152; R. Jewett,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278; T. R. Schreiner, *Romans*, 191-194;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43-245.

볼 수 없다. 22절처럼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문구를 가진 갈라디아서 3:22,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ἡ ἐπαγγελία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δοθῆ τοῖς πιστεύουσιν.)에 보면, ‘나타나다’의 의미를 지닌 πεφάνερωται가 아닌, ‘주다’의 의미를 지닌 δοθῆ(dothe)가 사용되고 있다.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문구가 등장하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약속’과 ‘의’를 율법과 서로 대립 관계에 두면서(3:11, 14, 18, 21-22) 서로 동일시한다. 그는 3장에서 율법과 대립 되는 ‘의’, ‘약속’, ‘복’, ‘성령’이 똑같이 (신자의)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말한다.³⁹⁾ 이처럼 갈라디아서 3:22는 약속/의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말하지 않고, δοθῆ가 보여 주는 것처럼, 약속(의)이 어떻게 주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면, 같은 문구를 가진 로마서 3:22도 당연히 NIV(2011) 번역(“This righteousness is given through faith in Jesus Christ to all who believe.”)이 보여 주고 있는 것처럼, 동사 ‘주다’가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⁴⁰⁾ 그러므로 3:22를 3:21의 동사 πεφάνερωται가 생략되었다고 보면서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문구를 기독교적인 전망에서 번역하려는 것은 전후 문맥은 물론, 갈라디아서 3:22을 고려해 볼 때도 부당하다.⁴¹⁾ 이뿐만이 아니다. 3:21-22의 평행 구절인 로마서 1:17a가 복음 안에 계시 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한 다음, 바로 이어 1:16의 ‘믿는 모든 자’와 함께 사람의 믿음을 가리키는 ‘믿음’ 문구(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를 두어 이 ‘의’가 믿는 신자를 위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사실도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으로 보게 한다.

39) 바울은 갈 3:6에서 창 15:6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말한 다음, 바로 이어 갈 3:7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οἱ ἐκ πίστεως)이 아브라함의 자녀됨을 주장한다. 그런 다음 8절에서 창 12:3을 인용하여, 이방인들이 ‘믿음으로’(ἐκ πίστεως)로 의롭게 된 것이 창 12:3에 있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 복음을 받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갈 3:9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 아브라함과 함께 현재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 3:13-14에서 신 27:26; 21:23을 인용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당하신 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약속된 성령을 받도록 하기 위함’(ἵνα 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 λάβωμεν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이라고 말한다. 여기 ‘그 약속된 성령’(τὴν ἐπαγγελίαν τοῦ πνεύματος)은 문법적으로 양자를 일치시키는 일종의 설명 속격이다. 그렇다고 보면 ‘의’, ‘복’, ‘약속’, ‘성령’은 모두 동일시되며, 이들은 율법으로서가 아닌, 모두 ‘믿음으로’ 주어진다.

40) 역시 C. G. Kruse,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2), 180; C. M. Pate, *Romans* (Grand Rapids: Baker Books, 2013), 77.

41) J.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65), 357: “‘Through faith of Jesus Christ’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indicates the means through which this righteousness is brought to bear upon us.”

둘째, 주격 주창자들(예. 워더링턴과 홍인규)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를 3:22의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가 3:24의 διὰ τῆς ἀπολυτρόσεως τῆ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와 3:25의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그의 피로써 믿음으로’)와 서로 병행한다는 점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23절의 이유 접속사 γάρ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22절이 23절과 직접 연결되고, 그리고 24절과, 24절을 뒷받침하고 있는 25절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류의 범죄를 말하는 23절과 직접 연결되고 있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바울은 3:23에서 22절과 관련하여(22절의 ‘모든 사람’과 23절의 ‘모든 사람’의 평행을 보라) 왜 모든 사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유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사실에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어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낸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22절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방편을 말하고 있다면, 24절은 23절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근거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22절을 23절을 제쳐두고 24절이나 25절과 직접 병행시키기는 것은 불합리하다. 설사 3:22의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를 ‘그리스도의 신실성’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22절과 24-25절을 서로 평행 본문으로 보기는 매우 어렵다. 24-25절은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속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⁴²⁾

셋째, 홍인규는 주격 속격으로 번역하여야 하는 또 하나의 근거를 3:25에 있는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가 3:22의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구문과 연결된 것으로, 그리고 이것이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그의 피로’)와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여러 학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⁴³⁾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가 그 앞에 있는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를 수식하지 않고, ἰλαστήριον을 수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를 직접 믿음의 대상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리스어 성경 NTG²⁸과 GNT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고대 사본들(κ C* D* F G, ms 1739, 256, 1881, 1962, 6, 104, 365, 424, 436, 1852, Origen, Eusebius)이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를 생략하고 있는 것도 ἐν τῷ αὐτοῦ

42) 2012년 김세윤은 논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 점을 지적해 주었다. 덧붙여 그는 롬 3:21-22는 갈 2:16과 관련해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3) 예. E. Käseman, *Commentary on Romans*, 98; C. E. B. Cranfield,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1 (Edinburgh: T. & T. Clark, 1985), 200;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36-237; A. J. Hultgren,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1), 158.

αἵματι를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NRS는 양자를 분리하기 위해 사이에 콤마를 넣어 “by his blood, effective through faith”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므로 3:22의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구문을 25절의 διὰ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τῷ αὐτοῦ αἵματι와 연결을 시켜 주격 속격인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⁴⁴⁾

2.3. πίστις 어휘가 로마서 3:21-31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

사실 πίστις 어휘 자체는 ‘믿음’과 ‘신실함’ 양면의 의미를 갖고 있다.⁴⁵⁾ 이 점은 주격 속격 주창자들뿐만 아니라, 목적 속격 주창자들도 인정한다. 그러므로 3:21-31의 문단에 있는 πίστις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가는 본문과 문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3:21-31에 8번(3:22, 25, 26, 27, 28, 30×2, 31) 사용된 πίστις 용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3:22의 이전 문맥과 이후 문맥에서 사용된 πίστις 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 문맥을 살펴보자. 로마서 서문(1:1-17)에 보면, ‘믿음’ 어휘가 일곱 번 사용된다. 1:5의 ὑπακοὴν πίστεως(‘믿음의 순종’), 1:8의 ἡ πίστις ὑμῶν(‘너희의 믿음’), 1:12의 πίστεως ὑμῶν τε καὶ ἐμοῦ(‘너희와 나의 믿음’), 1:16b의 παντὶ τῷ πιστεύοντι(‘믿는 모든 자’), 1:17b의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믿음으로부터 믿음에게로’), 그리고 1:17c의 하박국 인용에 ἐκ πίστεως가 그것이다. 그다음 이방인과 유대인의 범죄를 말하는 1:18-3:20을 보면, ‘믿음’ 어휘가 두 번 나온다. 하나는 3:3에서 유대인의 불순종과 관련하여 ἡ ἀπιστία(‘불성실’)이 사용되고, 다른 하나는 같은 절에서 이와 대조되는 τὴν πίστιν τοῦ θεοῦ(‘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πίστις 어휘 중에 1:5, 8, 12는 모두 로마교회 신자들이나 바울의 믿음을, 1:16b의 경우 복음을 믿는 모든 자의 믿음을, 그리고 3:3a의 경우 유대인의 불성실함을, 이와 대조되는 3:3b의 τὴν πίστιν τοῦ θεοῦ의 경우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리키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⁴⁶⁾ 그렇다면 남아 있는 것은 1:17b의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과 1:17c의 하박국 인용구 ἐκ πίστεως이다. 17b

44) T. R. Schreiner, *Romans*, 190.

45) BDAG, 818-820; *TDNT* VI, 182-222.

46) 하지만 R. B. Hays, “Πίστις and Pauline Christology: What is at Stake?”,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2), 282-286은 롬 3:3의 속격 구문인 τὴν πίστιν τοῦ θεοῦ가 주격 속격인 하나님의 신실성을 뜻하기 때문에, 1:17의 ἐκ πίστεως도 사람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성을 지칭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의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의 경우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논란이 되는 것은 πίστις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이다. 두 번 반복되고 있는 πίστις를 신자의 믿음으로, 아니면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믿음(신실성)으로 보느냐는 것이다. 몇몇 학자들은 여기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의 문구를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보지 않고, 앞에 있는 ἐκ πίστεως를 ‘그리스도의 신실성’ 혹은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그리고 뒤에 있는 εἰς πίστιν을 신자의 믿음으로 보고 있다.⁴⁷⁾ 하지만 동일한 ‘믿음’ 어휘에 대해 전자와 후자를 달리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를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강조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ἐκ θανάτου εἰς θάνατον, ἐκ ζωῆς εἰς ζωῆν (‘사망으로부터 사망으로’,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고후 2:16)의 경우처럼, 사람의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⁴⁸⁾

더구나 로마서는 독자들이 모두 눈으로 읽고 확인하여 이해하도록 쓰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편지를 지참한 자가 독자들 앞에서 소리 내어 읽는 것을 듣고, 이해하도록 쓰인 것이다. 그렇다면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앞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지만, 그 내용을 다르게 전달하기를 원한다면, 당연히 이 단어나 문구를 왜 앞의 것과 다르게 이해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설명 없이 동일한 단어나 문구가 사용된다면 독자나 청중은 당연히 앞의 단어와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 3:17b의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앞에 있는 ‘믿음’ 문구인 1:5의 ὑπακοὴν πίστεως, 1:8의 ἡ πίστις ὑμῶν, 1:12의 ἀλλήλοις πίστεως ὑμῶν τε καὶ ἐμοῦ와 1:16의 παντὶ τῷ πιστεύοντι, 모두 사람의 믿음을 가리키고 있다. 이것은 ἐκ πίστεως εἰς πίστιν 어휘를 신자의 믿음으로 보게 한다.

그렇다면 1:17c의 하박국 인용구에 있는 ἐκ πίστεως는 어떻게 번역되어야

47) 예. N. T. Wright, *The Letter to the Romans* (Nashville: Abingdon, 2002), 425; 박익수, 『로마서 주석 I』, 159; R. Longenecker, *Romans*, 176-180에서 앞의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성’으로, 뒤의 믿음을 ‘인간의 믿음’으로 보고 있으며, L. T. Johnson, *Reading Roman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New York: Crossroad, 1997), 28; C. Talbert, *Romans* (Macon: Smyth & Helwys, 2002), 41-42에서 전자를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의 신실성으로, 후자를 사람의 믿음으로 본다. 반면에 R. Hays, *The Faith of Jesus*, 278-279는 전자를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성으로, 뒤에 있는 것은 앞의 것을 강조하는 수사학적 표현으로 본다.

48) 역시 A. Schlatter, *Romans: The Righteousness of God*, S. S. Schatzmann, trans. (Peabody: Hendrickson, 1995), 24-25; C. E. B. Cranfield, *Romans I*, 100-101; P. Stuhlmacher, *Paul's Letter to the Romans*, S. J. Hafemann, tr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28-29; M. F. Bird, *Romans* (Grand Rapids: Zondervan, 2016), 44; T. R. Schreiner, *Romans*, 78-79.

하는가? 이것은 하박국 인용구에 있는 ὁ δὲ δίκαιος(‘그 의인’)를 누구로 보느냐에 달려 있다. 바울이 인용한 하박국 2:4를 보면 “의인은 그의 신실성 때문에 살리라”(וַיִּצְרִיךָ בְּאַמּוּנָתוֹ יְהוָה)는 히브리어 본문(MT)과도, ‘의인은 나의 믿음/신실성 때문에 살리라’(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 μου ζήσεται)라는 칠십인역 그리스어(LXX) 본문과도 정확하게 동일하지 않다.⁴⁹⁾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한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본문을 인용하였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자신의 주장을 보다 강력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가끔 구약의 본문을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예. 롬 3:10; 10:5; 고전 1:31; 갈 3:10, 12), 히브리어 본문에 있는 3인칭 대명사 ‘그의’(i)나 칠십인역의 1인칭 대명사 ‘나의’(μου)를 의도적으로 생략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서두에 나오는 ὁ δὲ δίκαιος는 누구이며, 전치사구 ἐκ πίστεως는 ὁ δίκαιος를, 아니면 동사 ζήσεται를 수식하고 있는가?⁵⁰⁾ 헤이스는 하박국 2:4에 나오는 ὁ δὲ δίκαιος는 그리스도를, ἐκ πίστεως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ζήσεται는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칠십인역에서 하박국 2:4가 메시아적으로 번역된 점, 제1에녹서 (38:2; 53:6)에 의인이 종말에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는 분으로 표기된 점,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를 “의인”으로 호칭 된 점(행 3:14; 7:52; 22:14; 벤전 3:18; 요일 2:1)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⁵¹⁾

49)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32: “하박국 2:4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구약 본문은 물론 그 어떤 유대교 해석도 따르지 않는다.”

50) 전치사구 ἐκ πίστεως가 어디를 수식하느냐에 대하여 학자들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예를 들면, J. A. Fitzmyer, *Romans*, 265; R. Jewett, *Romans*, 145-147; R. Longenecker, *Romans*, 180-183은 동사 ζήσεται를 수식하는 것을 선호하고, C. E. B. Cranfield, *Romans 1*, 102, U. Wilckens, *Der Brief an die Römer*, 90; A. J. Hultgren,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1), 79;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82 등은 명사 ὁ δὲ δίκαιος를 수식한다고 본다.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자주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후자가 더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은 전치사구를 명사 앞에 두거나, 아니면 동사 뒤에 두지 않고 사이에 둔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쪽에 다 연결될 가능성을 열어 둔다. 사실 바울은 로마서 서언(1:5)과 결연(16:26)에 똑같은 단어 ὑπακοή πίστεως를 두어 신자의 삶이 믿음에 의한 삶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역시 T. R. Schreiner, *Romans*, 79-80을 보라. 이 구절 번역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충연, “갈라디아서 3:11의 ἐκ πίστεως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1 (2012), 160-168. 그는 ἐκ πίστεως를 명사인 ὁ δίκαιος에 연결시켜 번역하여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51) R. Hays, *The Faith of Jesus Christ*, 32-162, 272-284; R. Hays, “Apocalyptic Hermeneutics: Habakkuk Proclaims ‘the Righteous One’”, *The Conversion of the Imagination: Paul as Interpreter of Israel's Scriptures* (Grand Rapids: Eerdmans, 2005), 119-142. 역시 D. Heliso, *Pistis and the Righteous One: A Study of Romans 1:17 against the Background of Scripture and Second Temple Jewish Literature* (Tübingen: Mohr Siebeck, 2007).

하지만 하박국 2:4가 칠십인역과 유대 문헌에서 메시아적으로,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가 “의인”으로 지칭되고 있다고 해서, 바울의 인용구에 나타나 있는 ὁ δίκαιος가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의 하박국 2:4의 인용문을 보면 칠십인역에 나오는 인칭대명사 μου나 히브리어 본문에 나오는 ʾי를 생략하여 본문을 보다 일반화시킨다. 바울이 인칭대명사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개인적인 특정 인물보다 오히려 일반적인 인물을 통칭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⁵²⁾ 이뿐만 아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 어느 곳에서도 메시아 예수에게 ὁ δίκαιος와 πίστις 어휘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없다. 오히려 두 어휘를 전폭적으로 신자와 관련하여 사용한다.⁵³⁾

게다가 정확하게 동일한 하박국 본문을 인용하고 있는 갈라디아서 3:11b의 단수 “의인”은, 세 이유 접속사 ὅτι가 보여주는 것처럼(3:10b, 11a, 11b), 문맥적으로 가까이는 ‘아무(단수)’도 율법으로(ἐν νόμῳ οὐδεὶς, 단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하는 3:11a와, 멀리는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의 사람들’(οἱ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복수)을 말하는 3:10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3:10의 ‘율법의 사람들’은 3:9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οἱ ἐκ πίστεως, 복수)과 대조된다. 이처럼 문맥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율법의 행위의 사람들’(복수)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자’(단수)가 서로 짝을 이룬다. 똑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복수)과 ‘믿음으로 사는 의인’(단수)이 서로 짝을 이룬다. 그렇다면 문맥적으로 볼 때 하박국 2:4의 인용구에 나타나는 ὁ δὲ δίκαιος ἐκ πίστεως는 ‘메시아의 신실성’이 아닌 “믿음으로 의인이 된 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⁵⁴⁾ 바울이 다른 곳에서 자주 ἐκ πίστεως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편으로 말하고 있는 점(예. 롬 3:26, 30; 5:1; 갈 3:8, 24)도 이점을 뒷받침한다.

그렇다면 로마서 3:22의 후 문맥에 나타나는 πίστις의 경우는 어떠한가? 후 문맥에 나타나는 πίστις 어휘를 살펴보면, 3장에서 7번(3:25, 26, 27, 28, 30×2, 31), 4장에서는 10번(4:5, 9, 11, 12, 13, 14, 16×2, 19, 20), 그리고 동사 πιστεύω가 6번(4:3, 5, 11, 17, 18, 24) 나온다. 5장에서는 명사가 2번(5:1, 2) 나온다. 6장에는 동사가 1번 나온다. 그 밖의 경우를 보면 9-16장에 명사가 13번(9:30, 32; 10:6, 8, 17; 11:20; 12:3, 6; 14:1, 22, 23×2; 16:26), 동사가

52) F. Watson, “By Faith (of Christ)”, 154-155.

53)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81; K. W. McFadden, “Does ΠΙΣΤΙΣ Mean ‘Faith(fulness)’ in Paul?”, *Tyndale Bulletin* 66 (2015), 251-270.

54) F. Watson, “By Faith (of Christ)”, 159-162.

10번(9:33; 10:4, 9, 10, 14×2, 16; 13:11; 14:2; 15:13) 나타난다. 지면상 3:22 이후부터 6장의 경우만 간략하게 보자. 3:25, 26의 경우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3:27-31를 보면 27절의 ‘믿음의 법’의 경우 27절 전체 내용이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실성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28-30절에 있는 ‘믿음’ 어휘는 모두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하는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행위(율법의 행위)와 대립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두 사람의 믿음을 말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31절의 ‘믿음’ 어휘는 그 앞에 있는 사람의 믿음을 대변하는 말이다.

4장의 ‘믿음’ 어휘를 살펴보면 명사의 경우는 전폭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동사의 경우는 아브라함이나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이 주어가 된다. 그리고 동사의 목적어는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4장의 ‘믿음’ 어휘는 모두 사람과 관련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명사든 동사든 그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 5장도 예외가 아니다. 5장에 2번 사용되는 경우를 보면, 다같이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이 믿음이 바울과 로마교회 신자의 믿음임을 분명히 한다. 6장에는 동사가 1번 사용되고 있는데 그 동사의 주어는 “우리”이다. 이처럼 3:22부터 6장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 어떤 ‘믿음’ 어휘도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없다.⁵⁵⁾ ‘믿음’ 어휘는 전폭적으로 사람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⁵⁶⁾

게다가 로마서와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 이를테면, 그의 성육,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단 한 번도 πίστις로 표현하지 않는다. 로마서 3:24-25에서는 ἀπολύτρωσις(‘구속’)와 ἱλαστήριον(‘화목/속죄제물’)으로,⁵⁷⁾ 5:18에서는 δικαίωμα(‘의로운 행위’)로, 5:19에서는 ὑπακοή(‘순종’)로

55) J. A. Fitzmyer, *Romans*, 345; T. H. Tobin,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 The Argument of Romans* (Peabody: Hendrickson, 2004), 132;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45; M. 실바, 『BECNT: 빌립보서』, 최갑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222.

56) T. H. Tobin,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 The Argument of Romans*, 132: “바울 서신에서 예수가 동사 ‘믿는다’의 주어나 혹은 믿음에 수식되는 명사로 표현되어 제시되는 실례가 없다는 사실은, 예수가 명사 ‘믿음’ 뒤에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 혹은 이와 유사한 호칭은 ‘믿음’의 주어가 아니라, 오히려 대상임을 보여 준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뜻하는 것이지 예수의 신실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역시 J. A. Fitzmyer, *Romans*, 345: “바울은 아버지께 대한 예수의 신실함을 생각하거나, 예수를 신자가 닮아야 할 패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의 구체적인 나타남이다.”

57) K. P. Donfried, “Paul and the Revisionist: Did Luther Really Get it All Wrong?”,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46 (2007), 32.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πίστις 어휘를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지칭하기 위함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3:22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그리스도의 신실함’, 곧 그의 ‘순종’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경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24-25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의 중심성이 약화된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순종을 지칭하는 ‘구속’과 ‘화목/속죄 제물’ 등은 불필요한 언급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우리는 3:21-31에 있는 ‘믿음’ 어휘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이 아닌 신자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4. διὰ/ἐκ πίστεως 구문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3:22, 26)의 단축어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것을 지칭하고 있는가?

로마서 3:21-31에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3:22, 26)과 함께 διὰ πίστεως 구문이 세 번(25, 30, 31),⁵⁸⁾ ἐκ πίστεως 구문이 한 번(3:30)⁵⁹⁾ 나타난다. 왜 이들 구문이 특별히 바울 서신에서만, 그것도 주로 칭의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용되고 있는가?⁶⁰⁾ 우리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들 구문의 기원을 알 수는 없지만,⁶¹⁾ 이들 구문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지칭하는 독특한 바울의 표현이다.”⁶²⁾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 갈라디아서 3:7, 9에 나타나고 있는 οἱ ἐκ πίστεως 구문이 이 점에 있어서 결정적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구문이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믿는 신자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⁶³⁾ 우리가 로마서 3:26의 τὸν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도 주격 속격 주창자들처럼 ‘예수의 신실성’ 혹은 ‘예수의 신실함을 따르는 자’로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로 보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58) 역시 갈 3:14, 26; 고후 5:7; 엡 2:8; 3:12, 17.

59) 역시 갈 3:7, 8, 11, 12, 24; 5:5; 롬 1:17×2; 4:16×2; 5:1; 9:30, 32; 10:6; 14:23×2.

60) ἐκ (혹은 διὰ) πίστεως 구문은 주로 이신칭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만 나타난다. 물론 히 10:38과 약 2:24에 각각 1번씩 언급되고 있지만, 전자는 합 2:4의 인용구에서, 후자는 초대 교회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오해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바울과 무관하지 않다.

61) 왓슨(F. Watson)은 F. Watson, “By Faith (of Christ)”, 147-163에서 바울이 ἐκ πίστεως를 ἐξ ἐργῶν νομοῦ 구문과 대조시키기 위해 구약 하박국 2:4에 있는 ἐκ πίστεως 구문을 채용하였다고 주장한다.

62) J. Murray, *The Epistle to the Romans*, 372.

63) J. D. G. Dunn, “ΕΚ ΠΙΣΤΕΩΣ: A Key to the Meaning of ΠΙΣΤΙΣ ΧΡΙΣΤΟΥ”, 361: “That is to say, ‘those ἐκ πίστεως’ is a way of saying ‘those who have believed as Abraham believed.’”

그렇다면 이들 구문을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의 단축어로 볼 수 있는가? 우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διὰ πίστεως와 ἐκ πίστεως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3:22의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가 3:26의 ἐκ πίστεως Ἰησοῦ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3:30에서 διὰ πίστεως와 ἐκ πίστεως가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점에 있어서 갈라디아서 2:16의 용법이 도움이 된다. 갈라디아서 2:16에 보면,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와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는 다같이 ‘율법의 행위’와 대립 관계를 형성하면서 상호교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⁶⁴⁾

이것이 사실이라면, διὰ/ἐκ πίστεως 구문과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가? 왓슨(F. Watson)은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를 바울이 하박국 2:4에 나타나고 있는 ἐκ πίστεως로부터 가져온 ἐκ πίστεως의 긴 양식으로 본다.⁶⁵⁾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ἐκ πίστεως와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가 다같이 ‘의’ 어휘들과는 긍정적으로, 반대로 ‘율법’ 어휘들과는 부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왓슨이 제안한 것처럼,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가 상호교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ἐκ πίστεως의 긴 양식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ἐκ πίστεως는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의 단축어라는 사실이다.⁶⁶⁾ 이와 같은 추론이 옳다고 한다면, 우리는 확신 있게 로마서 3:21-31에 있는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와 ἐκ πίστεως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 있다.

3. 나가는 말

우리는 성경 번역과 관련하여 현금의 신약학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에 대한 바울의 용법을 파악하기 위해,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64) 이점은 다음과 같이 2:16이 일종의 교차대구법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이 된다.

εἰδότες [δὲ] ὅτι οὐ δικαιοῦται ἄνθρωπος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ἐὰν μὴ (A)
 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B)
 καὶ ἡμεῖς εἰς Χριστὸν Ἰησοῦν ἐπιστεῦσαμεν, (C)
 ἵνα δικαιοθῶμεν ἐκ πίστεως Χριστοῦ καὶ οὐκ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B')
 ὅτι ἐξ ἔργων νόμου οὐ δικαιοθήσεται πᾶσα σὰρξ. (A')

65) F. Watson, "By Faith (of Christ)", 147-161.

66) D.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225: "The simple references to 'faith' in 3:28 and 3:30 are abbreviations of the 'faith in Christ/Jesus' that is enunciated in 3:22 and 26." 이 문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J. D. G. Dunn, "ΕΚ ΠΙΣΤΕΩΣ: A Key to the Meaning of ΠΙΣΤΙΣ ΧΡΙΣΤΟΥ", 351-366을 보라.

구문이 두 차례 나오는 로마서 3:21-31의 본문을 시범적으로 조사하였다. 우리의 초점은 이 문단에 나타나고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과 ἐκ (혹은 διὰ) πίστεως가 기독교론적으로 의를 나타내는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구원론적으로 의를 얻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가에 두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문맥적 분석은 로마서에서 ‘율법’ 어휘가 의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결과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믿음’ 어휘는 의가 주어지는 긍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로마서 본문에서 ‘믿음’과 ‘의’ 구문이 사람의 구원 문제와 관련하여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논쟁이 되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주격 속격으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자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목적 속격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는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전통적으로 그렇게 번역되어온 것처럼, 목적 속격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믿음을 지칭하는 것으로 번역되어야 하며, 주격 속격인 ‘그리스도의 믿음’이나 ‘그리스도의 신실성’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⁶⁷⁾

<주제어>(Keywords)

로마서 3:22, 믿음, 피스티스 크리스투, 그리스도를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성.
Romans 3:22, faith, *pistis Christou*, faith in Christ, faithfulness of Christ.

(투고 일자: 2022년 1월 11일, 심사 일자: 2022년 2월 18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4월 19일)

67) 이와 같은 결론은 제임스 던, “바울 신학의 새 관점”, J. K. 베일비, P. R. 에디 편, 『칭의 논쟁: 칭의에 대한 다섯 가지 신학적 관점』, 문현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296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피스티스 크리스투”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닌 주요 문제는 그 해석이 의심스럽고 심지어 형편없는 주해를 수반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 받음’을 강조한 사실의 중요성을 약화하고, 바울의 본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지면상 논자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 이해에 필요한 다른 문단인 롬 4장; 9:30-10:10; 갈 2:16, 20; 3:2-14, 22-26; 5:4-6 등에 대한 연구를 여기서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이들 문단에 논자의 기존 연구들 역시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였다.

<참고문헌>(References)

- 김상훈, “A Pauline Chiastic Structure in Romans 3:19-31”, 「신약연구」 12:1(2013), 54-83.
- 김종길,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믿음”, 「신학사상」 144 (2009), 7-42.
- 김춘기, “바울 서신에 나타난 피스티스 크리스투”, 「신학과 목회」 5 (1991), 15-30.
- 김충연, “갈라디아서 3:11의 ἐκ πίστεως의 번역에 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31 (2012), 160-168.
- 김형근, “‘Faith of Christ’와 ‘Faith in Christ’: 제로섬(zero-sum) 관계인가? 윈윈(win-win) 관계인가? – 갈라디아서의 ΠΙΣΤΙΣ ΧΡΙΣΤΟΥ를 중심으로 –”, 「신약연구」 11/4 (2012), 890-929.
- 던, J., “바울 신학의 새 관점”, J. K. 베일비, P. R. 에디 편, 『칭의 논쟁: 칭의에 대한 다섯 가지 신학적 관점』, 문현인 역,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5.
- 라이트, T.,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박문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 2015.
- 라이트, T., 『톰 라이트 칭의를 말하다』,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1.
- 박익수, “Πίστις Χριστοῦ는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혹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신학과 세계」 41 (2000), 87-127.
- 박익수, 『로마서 주석 I』,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8.
- 서동수, “그리스도의 믿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가?”, 「신약논단」 9 (2002), 671-696.
- 실바, M., 『BECNT: 빌립보서』, 최갑중 역,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20.
- 이진섭, “믿음과 아브라함의 주제가 함의하는 바울의 신학적 논거”, 「Canon & Culture」 3:2 (2009), 211-248.
- 장해경, “한글 개역성경의 번역에 관한 두 가지 수정 제안”, 「성경원문연구」 31 별책 (2012), 188-194.
- 조대훈,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의 믿음에 관한 수사학적 연구 – 갈라디아서 3장을 중심으로 –”, 「신약연구」 13 (2013), 130-155.
- 최갑중, “ΠΙΣΤΙΣ ΧΗΡΙΣΤΟΥ,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 로마서 3:21-31에 나타난 πίστις와 δικαιοσύνη를 중심으로 –”, 「성경과 신학」 52 (2009), 65-107.
- 최갑중,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구문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로마서 1:16-17, 3:21-31, 4:1-25에 나타난 ‘믿음’과 ‘의(義)’에 대한 상관성 연구를 중심으로 –”, 「신약논단」 17:2 (2010), 357-394.
- 최갑중,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신약연구」 10:4 (2011), 911-940.
- 최갑중, “Agai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 김형근의 ‘Faith of Christ’와 ‘Faith in Christ’에 대한 답변 –”, 「신약연구」 12.2 (2013), 101-131.
- 최갑중, “New Proposal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 Contextual Approach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Construction in Romans and Galatians”, Chicago: SBL Annual

Meeting, 2012.

최종상, 『이방인의 사도가 쓴 로마서』, 신대현 역, 서울: 아가페, 2003.

최홍식, “ΠΙΣΤΙΣ in Gal 5:5-6: Neglected Evidence for the Faithfulness of Christ”, *JBL* 124 (2005), 467-490.

최홍식, “바울서신에 나타난 ἔργα νόμου와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반제에 대한 새 관점: 갈라디아서 2:16을 중심으로”, 『신약논단』 2 (2005), 805-854.

최홍식, “‘의롭게 됨’과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 『한국 기독교 교신학논총』 77:1 (2012), 31-55.

한규석, “Pauline Soteriology in Galatians with Special Reference to PISTIS CRISTOU”,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Birmingham, 2007.

한규석, “*Pistis Christou* as the Irrevocable Nature of Salv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Gal 2:16”, *Testamentum Imperium* 2 (2009), 1-31.

헤이스, R. B., 『그리스도의 믿음: 갈라디아서 3:1-4:11의 내러티브 하부 구조』, 최현만 역, 서울: 에클레시아북스, 2013.

홍인규, “하나님의 의의 복음(롬 3:21-26)”, 『백석신학저널』 20 (2011), 199-215.

Betz, H. D., *Galatians*, Philadelphia: Fortress, 1979.

Bird, M. F., *Romans*, Grand Rapids: Zondervan, 2016.

Bird, M. F. and Sprinkle, P. M.,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Campbell, D. A., “False Presuppositions in the *Pistis Christou* Debate: A Response to Brian Dodd”,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6:4 (1997), 713-719.

Campbell, D. A., “The Faithfulness of Jesus Christ in Romans 3:22”,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57-71.

Campbell, D. A., “The Meaning of ΠΙΣΤΙΣ and ΝΟΜΟΣ in Paul: A Linguistic and Structural Investigation”,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1:1 (1992), 85-97.

Campbell, D. A., *The Rhetoric of Righteousness in Romans 3:21-26*,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Supplement 6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Campbell, D. A. “Romans 1:17—A *Crux Interpretum* for the *Pistis Christou* Debate”,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113:2 (1994), 265-285.

Carson, D. A., “Why Trust a Cross? Reflections on Romans 3:21-26”, *ERT* 28 (2004), 345-362.

Cirafesi, W. V. and Peterman, G. W., “πίστις and Christ in Hippolytus’s *De Christo et Antichristo*: A Response to Michael F. Bird and Michael R. Whinton”, *NTS* 57 (2011), 594-603.

- Cranfield, C. E. B., ed., *On Romans and Other New Testament Essays*, Edinburgh: T & T Clark, 1998.
- Cranfield, C. E. B., *The Epistle to the Romans*, vol. 1, Edinburgh: T. & T. Clark, 1985.
- Donfried, K. P., “Paul and the Revisionist: Did Luther Really Get it All Wrong?”, *Dialog: A Journal of Theology* 46 (2007), 31-40.
- Dunn, J. D. G., “ΕΚ ΠΙΣΤΕΩΣ: A Key to the Meaning of ΠΙΣΤΙΣ ΧΡΙΣΤΟΥ”, J. R. Wagner, C. K. Rowe and A. K. Grieb, eds., *The Word Leaps the Gap: Essays on Scripture and Theology in Honor of Richard B. Hays*, Grand Rapids: Eerdmans, 2008, 351-366.
- Dunn, J. D. G., “Once More, ΠΙΣΤΙΣ ΧΡΙΣΤΟΥ”, E. E. Johnson and D. M. Hay, eds., *Pauline Theology Vol. 4: Looking Back, Pressing On*, Atlanta: Scholars Press, 1997, 61-81.
- Easter, M. C., “The Pistis Chistou Debate: Main Arguments and Response in Summary”, *Currents in Biblical Research* 9:1 (2010), 33-47.
- Fitzmyer, J. A., *Romans*, New York: Doubleday, 1997.
- Gathercole, S. J., “Justified by Faith, Justified by his Blood: The Evidence of Romans 3:21-4:25”, D. A. Carson et al., eds., *Justification and Variegated Nomism*, Grand Rapids: Eerdmans, 2004, 147-184.
- Grasso, K., “A Linguistic Analysis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The Case for the Third View”, *JSNT* 43:1 (2020), 108-144.
- Hays, R. B., “Πίστις and Pauline Christology: What Is at Stake?”,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282-286.
- Hays, R. B., *The Faith of Jesus Christ: An Investigation of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SBLDS 56, Chico: Scholars Press, 1983.
- Hays, R. B., *The Faith of Jesus Christ: The Narrative Substructure of Galatians 3.1-4.11*,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02.
- Heliso, D., *Pistis and the Righteous One: A Study of Romans 1:17 against the Background of Scripture and Second Temple Jewish Literature*, WUNT 2/227, Tübingen: Mohr Siebeck, 2007.
- Hooker, M. D., “Another look at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SJT* 69:1 (2016), 46-62.
- Hooker, M. D., “ΠΙΣΤΙΣ ΧΡΙΣΤΟΥ”, *NTS* 35 (1989), 321-342.
- Hultgren, A. J.,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1.
- Hultgren, A. J., “The Pistis Christou Formulation in Paul”, *Novum Testamentum* 22:3 (1980), 248-263.

- Hultgren, A. J., “Pistis Christou: Faith in or of Christ?”,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1, 623-661.
- Jewett, R.,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7.
- Johnson, L. T., *Reading Romans: A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New York: Crossroad, 1997.
- Käsemann, E., *Commentary on Romans*, Geoffrey W. Bromiley, tr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 Kruse, C. G.,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12.
- Li, C., “When Academic Debate Meets Translation Decision: The English Translation of *Pistis Christou* as an Example”, W. Loader, B. Pepschinski, and E. Wong, eds., *Matthew, Paul, and Others: Asian Perspective on New Testament Themes*, Hong Kong: Innsbruck University Press, 2019, 177-189.
- Matlock, R. B., “Detheologizing the *Pistis Christou* Debate: Cautionary Remarks from a Lexical Semantic Perspective”, *Novum Testamentum* 42:1 (2000), 1-23.
- Matlock, R. B., “*Pistis* in Galatians 3.26: Neglected Evidence for ‘Faith in Christ’?”, *New Testament Studies* 49:3 (2003), 433-439.
- Matlock, R. B., “The Rhetoric of *Pistis* in Paul: Galatians 2.16, 3.22, Romans 3.22, and Philippians 3.9”, *Journal for the Study of the New Testament* 30:2 (2007), 173-203.
- Matlock, R. B., “Saving Faith: The Rhetoric and Semantics of *Pistis* in Paul”,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73-90.
- McFadden, K. W., “Does ΠΙΣΤΙΣ Mean ‘Faith(fulness)’ in Paul?”, *Tyndale Bulletin* 66 (2015), 251-270.
- McFadden, K. W., *Faith in the Son of God: The Place of Christ-Oriented Faith within Pauline Theology*, Wheaton: Crossway, 2021.
- Moo, D., *The Epistle to the Romans*, 2nd ed., Grand Rapids: Eerdmans, 2018.
- Murray, J., *The Epistle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65.
- Pate, M., *Romans*, Grand Rapid: Baker Books, 2013.
- Porter, S. E. and Pitts, A. W., “*Pistis* with a Preposition and Genitive Modifier: Lexical, Semantic, and Syntactic Considerations in the *Pistis Christou* Discussion”,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33-53.

- Schellenberg, R. S., “οἱ πιστεύοντες: An Early Christ-Group Self-Designation and Paul’s Rhetoric of Faith”, *NTS* 65 (2019), 33-42.
- Schlatter, A., *Romans: The Righteousness of God*, S. S. Schatzmann, trans., Peabody: Hendrickson, 1995.
- Schliesser, B., “‘Christ-Faith’ as an Eschatological Event (Galatians 3.23-26): A ‘Third View’ on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JSNT* 38:3 (2016), 277-300.
- Sierksma-Agteres, S. J. M., “Imitation in faith: enacting Paul’s ambiguous *pistis Christou* formulations on a Greco-Roman Stage”,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y and Theology* 77:3 (2016), 119-153.
- Stubbs, D. L., “The Shape of Soteriology and the Pistis Christou Debate”, *Scottish Journal of Theology* 61:2 (2008), 137-157.
- Stuhlmacher, P., *Paul’s Letter to the Romans*, S. J. Hafemann, tran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94.
- Talbert, C., *Romans*, Macon: Smyth & Helwys, 2002.
- Tobin, T. H.,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 The Argument of Romans*, Peabody: Hendrickson, 2004.
- Wallace, D. B.,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s: An Exegetical Syntax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6.
- Watson, F., “By Faith (of Christ): An Exegetical Dilemma and Its Scriptural Solution”, M. F. Bird and P. M. Sprinkle, eds., *The Faith of Jesus Christ: Exegetical, Biblical and Theological Studies*, Peabody: Hendrickson, 2009, 147-164.
- Watson, F., *Paul and the Hermeneutics of Faith*, London: T & T Clark, 2004.
- Wilckens, U., *Der Brief an die Römer I*, Vluyn: Benziger, 1978.
- Witherington III, B., *Paul’s Letter to the Romans, A Socio-Rhe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Eerdmans, 2004.
- Wright, T., *Justification: God’s Plan & Paul’s Vision*, Downers Grove: IVP Academic, 2019.
- Wright, T., *Paul and the Faithfulness of God: Parts III and IV*, London: SPCK, 2013.
- Wright, T., *The Letter to the Romans*, Nashville: Abingdon, 2002.
- Van Nes, J., “‘Faith(fulness) of the Son of God’? Galatians 2:20b Reconsidered”, *Novum Testamentum* 55 (2013), 127-139.
- Young, S. L., “Paul’s Ethnic Discourse on ‘Faith’: Christ’s Faithfulness and Gentile Access to the Judean God in Romans 3:21-5:1”, *HTR* 108:1 (2015), 30-51.

<Abstract>

**How Should the Phras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Be Translated?:
A Contextual and Exegetical Approach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Construction in Romans 3:22**

Gab Jong Choi
(Evangelia University)

Since the book *The Faith of Christ* of Richard Hays appeared in 1983, the translation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has become a battlefield in recent Pauline Studies. The critical issue at stake is whether the phras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should be translated as an objective genitive, i.e., *faith in Christ*, or as a subjective genitive, i.e., *faith (faithfulness) of Christ*.

Most Korean Bibles, including the significant English Bibles, translate the phras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s *faith in Christ*. However, many recent English Bibles (e.g., Jubilee, BRG, New Matthew, RG, Wycliffe Bible, NET, CEB, CJV, ISV, NTE, PT, and Voice Bible) translate it as either *faith of Christ* or *faithfulness of Christ*.

Because it is generally recognized that this issue cannot be settled by grammatical and syntactical approaches in recent Pauline scholarship, this paper attempts a contextual and exegetical approach to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and ἐκ (διὰ) πίστεως constructions in Romans 3:21-31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Paulin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construction (Rom 3:22, 26; Gal 2:16[×2]; 3:22; Eph 3:12; Phi 3:9).

The paper gives its particular attention to three questions:

First, whether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construction, when it is employed with the δικα- terms, functions as an instrument to attain the righteousness of God or as an instrument to disclose the righteousness of God. Second, whether the πίστι- terms mean *human faith in Christ* or *the faithfulness of Christ* in its literary context. And third, whether ἐκ (διὰ) πίστεως construction functions as an abbreviation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in its literary context.

The paper finds, through a contextual and exegetical investigation of Romans 3:21-26, the following: First, the phras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functions as the means to attain the righteousness of God, not to disclose it. Second, the πίστι- terms

usually mean *human faith in Christ* in its literary context, not *the faithfulness of Christ*. And third, ἐκ (διὰ) πίστεως construction functions as an abbreviation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in its literary context.

The paper therefore concludes that the Paulin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should be translated as *faith in Christ* rather than as *faithfulness of Christ*.